

쇼바 데의 《봄베이의 영이》 《두 번째 생각》
인도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그 정체성, 을 묻는다

무더운 여름 저녁,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채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부엌에서 한참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내에게 찬물을 한 잔 달라고 소리친다.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그녀는 얼른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따라 그에게 갖다 준다. 물을 받아든 남편은 컵받침도 없이, 얼음도 띄우지 않은 물을 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어허, 어찌타’ 라는 김삿갓 시조에서처럼 이제 갓 결혼한 인도여자 마야는 ‘어허, 어찌타. 이 대책 없는 남편을 어디부터 손을 봐야할지...’ 걱정이 앞선다. 대학에서 직물디자인을 전공한 그녀는 남편의 ‘밥순이’가 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를 ‘밥순이’를 넘어 ‘밥통화’ 한데다가, 그와의 유일한 대화란 집으로 청구서가 날아오면 아내의 희박한 ‘절약정신’에 대해 일장 훈시를 할 때뿐이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에 빠지기로 결심한다. 위층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어린 대학생과.

아내를 ‘사물화’ 하는 남편, 남편을 ‘평가’ 하는 아내

쇼바 데의 장편소설 《두 번째 생각》은 캘커타 출신의 감상적인 처녀 마야가 봄베이 남자와 결혼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인도 여성 작가의 소설 대부분이 ‘폭력 남편, 매 맞는 아내’ ‘여성의 인권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하는 식의 정형화된 구조를 갖는 반면 그녀의 소설에는 매 맞는 아내 대신 바람난 아내가 등장한다. 물론 그녀들의 남편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지만 적어도 아내를 때리거나 바람을 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과감하게(?) 남편의 친구나 위층의 어린 대학생과 정분이 난다.

그녀들의 불만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들이 가정에서는 왜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건전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은 계약이고, 그 계약에서 나의 임무는 아내를 데려오는 순간 끝났다’는 인도 남성의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인도 남성이라 할지라도 고착화된 그 낡은 의식은 여전하다. 반면 인도의 신세대 여성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세대이다. 그녀들은 결혼 전까지 남자 친구들과 섞여 대학을 다니며 내일 제출할 과제물을 걱정하고, BBC의 공개 토론을 시청한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게 되면 자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아내를 ‘사물화’ 하는 남편과 남편을 ‘평가’ 하는 아내. 부부의 뒤틀림은 그 지점에서부터이다.

스스로를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은 ‘정체성’

작가는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유머’라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그녀의 주인공들은 아직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무언가



《봄베이의 연인》 쇼바 데 지음 | 황보석 옮김 | 문이당 | 435쪽 | 값 6,500원
 《두 번째 생각》 쇼바 데 지음 | 황보석 옮김 | 문이당 | 398쪽 | 값 8,500원

잘못되었다는 문제의식은 가득하다. 그들은 스스로를 희화화하고 남편을 조롱함으로써 현실의 불만을 표현하는데, 이런 이들의 내면에 깃든 것은 결국 자아를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은 '정체성'에 대한 욕망이다.

“당신 괜찮아? 아니면 내가 어머니에게 전화해 줄까?”

나는 ‘아뇨, 조금도 괜찮지 않아요. 사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바로 자살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물론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는 대신 나는 아내답게 무슨 말인가를 웅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 《두 번째 생각》 중에서

냉소적 유머는 인도 여성 작가로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사실, 그녀의 소설에는 죽음이나 탄생 같은 극단적인 슬픔이나 기쁨이 없다. 불륜의 현상이 발각되는 반전도 없다. 그녀의 주인공들은 사건 없는 하루하루를,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삶의 무용함’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들이 냉소적인 유머로 무미건조한 일상을 견디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웃음 뒤에 남겨지는 ‘성장소설적 여운’

인도인들에 가장 사랑받는 작가인 쇼바 데가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화를 지켜가는 것도 식상한 일상을 식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풀어내는 이런 탁월함 때문이다. 유명해진 인도 작가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터를 잡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세계적으로 대중성을 인정받은 작가임에도 여전히 인도 봄베이를 떠나지 않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도시, 봄베이 사람들의 관계를 특정 짓는 면면을 통해 사회의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삶을 살피고 보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그녀가 소설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생활 반경 안의 이야기, 즉 인도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의 출세작 《봄베이의 연인》은 인도

도시 여성의 성장, 결혼, 이혼 그리고 홀로서기를 다룬 소설이다. 중산층 출신의 주인공 카루나는 상류층으로의 편입을 꿈꾸며 안잘리라는 연상의 여인을 동경하지만 결국 타자에게 의존하는 삶 대신 홀로서기를 택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카루나와 안잘리의 서로 다른 행로는 결혼한 인도 도시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갈래 길이다. 이혼을 하고 자신의 일을 갖거나,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인도 사회가 강요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체화하지 못한-혹은 체화하지 않으려는-현대 도시 여성의 일상을 날카롭고 빛나는 풍자로 묘사한다. 결국 독자들은 주인공들의 불륜, 사이버 종교에의 탐닉, 옷과 구두에의 집착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 소설의 매력은 웃음 뒤에 남겨지는 이런 ‘성장소설적 여운’에 있다.

종교의 나라, 계급차별의 나라, 남녀 불평등의 나라. 인도는 우리에게 멀다. 하지만 쇼바 데가 보여주는 인간 보편의 정서는 그리 멀지 않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겪는 성장통 같은 것이고, 삶의 무용함에 맞서는 데 웃음만한 무기는 없기에, 그녀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셈이다. 어떤 아내가 누워서 물심부름을 시키는 남편의 고향을 감히 가납하겠는가. 자, 뚜껑(?) 열릴 준비가 되었다면 쇼바 데의 주인공들이 ‘어허, 어찌타’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지켜보자. **이주연**

이주연 기자